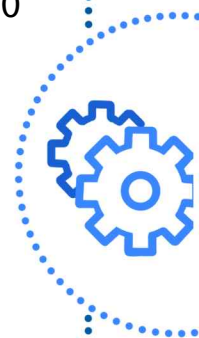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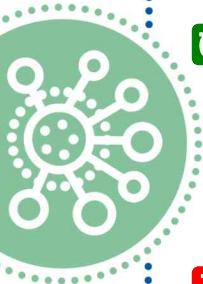




# 목 차

## 📁 글로벌 AI 동향 ..... 1

- 해외** - 이재용·젠슨황도 참전... CES 2025 화두는 ‘휴머노이드’ 경쟁 ..... 1
- 엔비디아, ‘물리적 AI’ 가속화...로봇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공개 ..... 2
- “내 책상 위에 AI 슈퍼컴퓨터를?”... 엔비디아, 단돈 435만원 세계 최소형 AI 슈퍼컴퓨터 출시 ..... 3
- 정책** -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6) ... 4
- 전 국민의 디지털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 5
-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 AI와 양자 산업 발전 지원 ..... 6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7
- 기업** - 우울증 진단 보조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내 최초 허가 ..... 8
- ‘AI로 글로벌 공략’...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컨설턴트로 도약 ..... 9
- “AI로봇이 해주는 노후설계”...‘퇴직연금 RA’ 혁신금융서비스 첫 지정 ..... 10





## 이재용·젠슨황도 참전... CES 2025 화두는 '휴머노이드' 경쟁

-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 CES 2025가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의 로봇 관련 이슈가 연달아 등장하면서, 'AI 두뇌'를 탑재한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분야가 큰 관심을 받게 됨
  - 2024년 6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시대 다음 단계는 로봇 공학"이라고 주장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AI 플랫폼 '그루트'를 공개한 데에 이어,
  - 1월 6일(현지시간) CES 2025 기조연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컴퓨터 '젯슨 토르'를 상반기에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짐

<CES 2025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 또 삼성전자는 12월 31일 국내 첫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휴보'를 개발한 KAIST 연구팀이 창업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율을 14.7%에서 35%로 늘려 2대주주에서 최대주주로 등극
- CES 2025는 몰입(Dive In)을 대표 기조로 삼았으며 다수의 해외 기업들은 휴머노이드를 포함하여 저마다 특색있는 로봇을 CES 2025에 출품
  - 미국의 리얼보틱스는 차세대 휴머노이드를 공개하고 기존의 자사 로봇 '아리아'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내놓았으며, 일본의 믹시는 이용자와 과거 대화를 기억하고 정서적 교감도 나눌 수 있는 대화형 로봇 '로미(Romi)'를 선보임
  - 국내 기업으로는 휴먼인머션로보틱스가 웨어러블 로봇 '엑소모션-R'을 출품해 혁신상을 수상
- 위와 같은 양상은 CES 2025가 AI와 로봇틱스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주요 무대가 될 것임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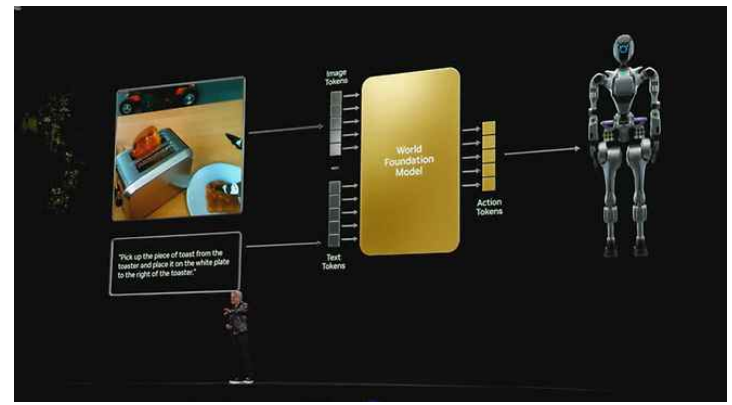
출처 : 머니투데이(2025.01.03.) 이재용·젠슨황도 참전... CES 2025 화두는 '휴머노이드' 경쟁



## 엔비디아, '물리적 AI' 가속화...로봇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공개

- 엔비디아가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 '코스모스(Cosmos)'를 통해 생성형 AI (Generative AI)에 이어 물리적 AI(Physical 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여정에 돌입
  - \* 센서 또는 제어장치를 통해 실제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시스템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CES 2025' 기조연설에서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 '엔비디아 코스모스(NVIDIA Cosmos)'를 소개
  - 물리적 AI 모델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방대한 양의 실제 데이터와 테스트가 필요한데, 코스모스는 개발자가 기존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적인 물리 기반 합성데이터를 방대한 양으로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 즉 코스모스는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과 동일한 3D 환경을 생성하고 로봇 또는 자율주행차가 이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서 로봇·자율주행차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음
    - \*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그간 직접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면서 주행 데이터를 학습했다면 앞으로는 코스모스로 비교적 수월하게 학습이 가능

<젠슨 황 CEO가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코스모스를 소개하는 모습>



- 코스모스 모델은 이미 각 분야를 선도하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도입하고 있으며 물리적 AI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픈 모델 라이선스로 제공될 예정
  - \* 1X, 애자일 로봇(Agile Robots), 어질리티(Agility), 피규어 AI(Figure AI), 샤오핑(XPENG), 우버(Uber) 등
- 젠슨 황 CEO는 “코스모스는 물리적 AI의 민주화를 촉진해 모든 개발자가 일반 로봇 개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며 “우리는 물리적 AI를 대중화하고 모든 개발자가 범용의 로봇 공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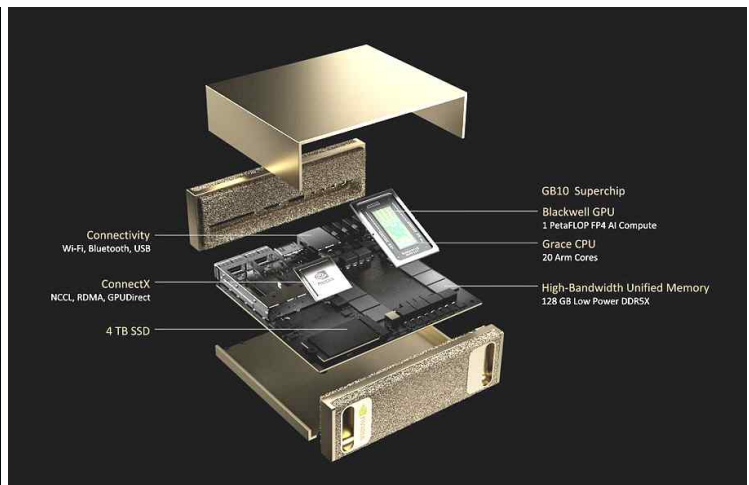
출처 : 데일리안(2025.01.07.) 엔비디아, '물리적 AI' 가속화...로봇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공개  
 한국경제(2025.01.10.) '엔비디아 역작' 1000억달러 시장 만든다...코스모스 '주목'



## “내 책상 위에 AI 슈퍼컴퓨터를?”... 엔비디아, 단돈 435만원 세계 최소형 AI 슈퍼컴퓨터 출시

- 엔비디아가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자, 데이터 과학자, 학생에게 엔비디아 그레이스 블랙웰(GraceBlackwell) 플랫폼의 성능을 제공하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프로젝트 디지츠(NVIDIA® Project DIGITS)’를 공개
  - 프로젝트 디지츠는 새로운 엔비디아 GB10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을 탑재하여 대규모 AI 모델의 프로토타이핑, 미세 조정, 실행을 위한 1초당 1,000조 번 연산의 AI 컴퓨팅 성능을 제공
  - 프로젝트 디지츠를 통해 사용자는 자체 데스크톱 시스템을 사용해 모델에서 추론을 개발하고 실행한 다음 가속화된 클라우드 또는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모델을 원활하게 배포할 수 있음
- 개발자는 프로젝트 디지츠를 통해 최대 4,050억 개의 파라미터의 거대언어모델을 실행할 수 있고 엔비디아 AI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수 있음
  - 개발자는 프로젝트 디지츠를 통해 2천억 파라미터의 거대언어모델을 실행할 수 있고 엔비디아 커넥트X® 네트워킹을 통해 두 대의 프로젝트 디지츠 AI 슈퍼컴퓨터를 연결하면 최대 4,050억 개의 파라미터 모델을 실행할 수 있어 AI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음
  -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등을 포함한 엔비디아 AI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수 있음

<AI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프로젝트 디지츠의 소개 모습과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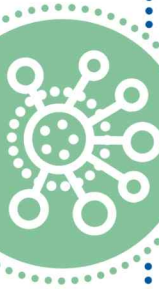
-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모든 데이터 과학자, AI 연구원, 학생의 책상에 AI 슈퍼컴퓨터를 배치함으로써 이들이 AI 시대에 참여하고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 인공지능신문(2025.01.07.) “내 책상 위에 AI 슈퍼컴퓨터를?”...엔비디아, 단돈 435만원 ‘2000억개 파라미터 모델 실행하는 세계 최소 AI 슈퍼컴퓨터’ 출시



## 「S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S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요국이 AI 혁신과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을 위해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SI기본법 제정을 추진
  - \* (美) AI 행정명령 발효('23.10월), (EU) AI법 제정('24.6월)
-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
  -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AI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AI 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포함
  - (AI 산업육성 지원) R&D와 AI 도입·활용 지원,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AI 집적단지 지정과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으로 AI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며,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규정
  - (고영향AI·생성형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 AI로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정의하고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와 사업자 책무를 규정
- 정부는 동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를 출범
  - 해당 TF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여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율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
- AI 업계는 SI기본법 제정에 대해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그간 법률 공백으로 인해 생성형 AI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명확한 규제 및 지원 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투자자들도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 쉽지 않았으나,
  - AI 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 생겨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기술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 쉽게 개정하기 어려운 법안을 마련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가이드라인이나 행정명령과 같은 탄력적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지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지침 수준의 행정명령으로 존재하며 일본 역시 가이드라인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4.12.26.) AI 시대의 새로운 서막,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ZDNet Korea(2025.01.11.) AI 기본법 TF 발족...“산업 진흥·규제 사이 균형 찾기 과제”



## 전 국민의 디지털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전 국민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제품·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

-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는 정보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
-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기술 및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전국민 대상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한정하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하여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고,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표준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사용하기 쉬운 키오스크 확대를 위한 제조사의 의무 신설

- 키오스크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디지털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 기업·시장 중심의 정책 추진

-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업과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정부의 신규 서비스·제품 등에 대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공 부분의 디지털 차별과 소외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통해 민간 부분의 확산을 지원
- 디지털포용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기술·서비스 현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R&D 투자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민·관 협력 사항을 발굴하고 장기적 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

- 「디지털포용법」은 빠르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하위 법령과 행정 규칙을 마련할 계획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12.26.) AI·디지털 시대, 전 국민의 디지털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 AI와 양자 산업 발전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
-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 총력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주무부처로서 '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
  -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포괄하는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25.1분기)
  - 1조 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인공지능 전환(AI) 신생기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25년 8,100억 원 목표) 및 정책금융을 지원
  -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AI스타트업의 해외 거점 시설을 지원하며 디지털 수출개척단(아세안·중동 등)을 운영하는 등 인공지능 해외진출 본격화
- 첨단생명과학(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 반복실험 방식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연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명과학 혁신전략' 수립
  -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25.下)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사업을 본격 착수

<2025년 업무계획 요약(일부)>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첨단바이오·양자등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p>글로벌 AI 경쟁력 공고한 3위권 달성</p>	<p>국가전략기술 R&amp;D 투자 확대</p>
<p>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AI 추가</p>	<p>'24년 4.9조원 &gt;&gt; '25년 6.4조원</p>
<p>&lt; R&amp;D·투자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gt;</p> <p>R&amp;D 30% ~ 50% 투자 15% ~ 35%</p>	<p>첨단바이오·양자대형 사업 추진</p>
	<p>첨단바이오 &gt;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착수 '25년 113억원</p> <p>양자 &gt;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착수 '25년 252억원</p>

- 과기정통부 측은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힘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5.01.10.)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12월 23일(월)에 새롭게 정식 개통한다고 밝힘
  - 지금까지는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령 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의 용어로 된 질문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줌
    - \* 사례: A씨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기사를 접하고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접속하여 “딥페이크”로 검색했으나 결과가 없다는 안내를 받음
  -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법령 총 5,218건에 대한 법령 용어 등 관련 데이터 약 75만 건과 법령 관련 질의 답변 데이터 약 2만 건을 인공지능 모델에 반복 학습시켜 개발
  - 해당 시스템에서는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된 질문이 자동완성 되도록 하여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법조문을 찾을 수 있고,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타자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전환하여 법조문 검색 결과를 제공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화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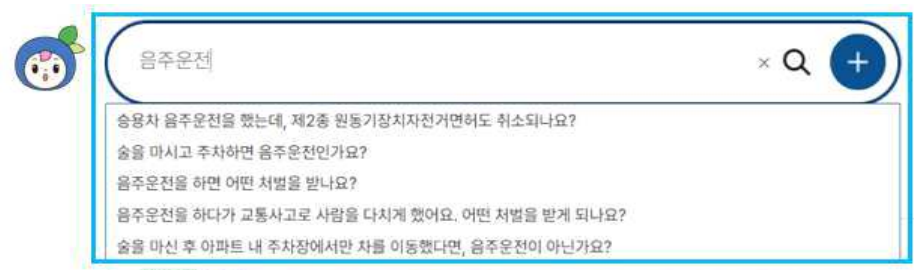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1. 11.] [법률 제20429호, 2024. 9. 10.,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4.9.10> 1. '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1.] [대통령령 제34987호, 2024. 11. 8., 일부개정]

**지방세의 인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지방세의 인분 방법 및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11.8> 1.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부과된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



음주운전으로 질의를 넣을 때 연관된 질문을 자동완성으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추후에는 2024년에 수립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을 토대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마련하고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입법 배경 및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할 예정

출처 : 법제처 보도자료(2024.12.2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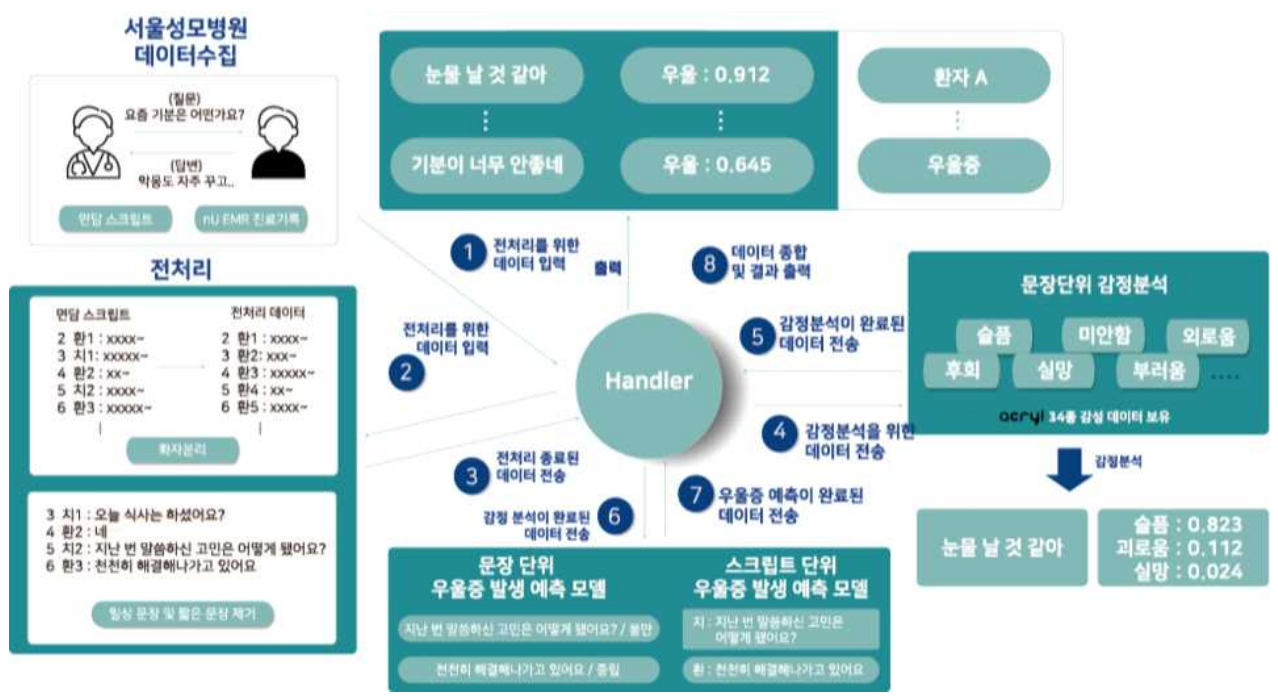




## 우울증 진단 보조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내 최초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크릴社의 우울증 확률을 표시해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ACRYL-D01’을 12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힘
  - 해당 기기는 내원한 환자와 의료진의 면담 기록지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울증 확률 (0~100%)을 수치화함으로써 정신건강의학 임상과의 우울증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로, 우울증을 스크리닝하는 소프트웨어로는 국내 최초로 허가된 제품
  - 아크릴-D01은 정신과전문의와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의사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정신과전문의의 환자 면담 기록에서 환자의 감정을 추출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우울증 확률을 계산

<ACRYL-D01의 우울증 발생 예측 알고리즘>



- 해당 기기를 이용하면 임상 현장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우울 정도 평가 시간을 10초로 줄일 수 있으며, 개발 단계에서는 의료인이 입력한 면담기록을 사용했으나 상용 제품에서는 음성 인식 기술 (Speech-to-Text)을 사용해 더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공급되어 진단 및 예측이 어려웠던 질환에 대한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
  - 다만 아직 건강보험에 등재해 수가를 받을 것인지, 진료효율화를 위해 의사가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지는 않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2024.12.23.) 우울증 진단 보조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내 최초 허가



**‘AI로 글로벌 공략’...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컨설턴트로 도약**

- 신한은행은 CES 참가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AI뱅크와 AI투자메이트 등 AI 기반 금융서비스를 선보임
-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AI투자메이트’는 투자와 관련한 이용자의 질문에 AI가 답변하는 서비스로 투자 리포트나 관련 뉴스 등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돕는 것이 목적
  - 이용자는 주요 투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신한은행 리포트 ▲실시간 금융뉴스 ▲배당률 높은 주식 ▲실시간 국내 시황 등 카테고리별로 나뉘어 있어 콘텐츠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음
  -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고 외부 생성형 AI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6월에 국내 공개될 것으로 예상
  - 현재는 내부 직원용 버전을 통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만 파악할 수 있고 해외 기업의 경우 다소 제한적으로 제공 중

<AI투자메이트 베타서비스 스크린샷>

**AI 투자메이트 #3 이슈 기반 투자 분석**

질문: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어떤 섹터가 좋을까?

이슈에 대한 답변 검색/생성  
 실제 이슈 발생에 대한 시황분석  
 투자 대상 리스트 확인

홈으로 이동

AI 투자메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발생 이후 다음날까지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셰일가스(Shale Gas), 블록체인 섹터의 수익률이 높았어요.

섹터명	다음날 수익률	D+7 수익률	D+30 수익률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7.6%	+3.2%	+12.7%
셰일가스(Shale Gas)	+6.2%	+8.2%	-0.4%

투자 관련 질문을 입력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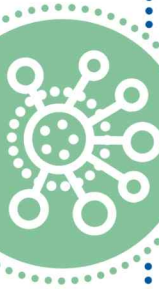
- 또한 신한은행이 '24년 11월 국내에서 선보인 ‘AI뱅크’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상담 및 업무 처리를 도움
  - 고객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 실제 해당 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의 얼굴을 AI뱅크로 구현
  - AI뱅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를 기본으로 계좌·체크카드 신규, 외화 환전, 제신고 등 64개 창구 업무를 처리하도록 안내

출처 : IT조선(2025.01.09.) 'AI로 글로벌 공략'...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컨설턴트로 도약



## “AI로봇이 해주는 노후설계”...‘퇴직연금 RA’ 혁신금융서비스 첫 지정

- RA는 ‘로봇(Robot)’과 ‘자산관리 전문가(Adviser)’의 합성어로, 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모바일 기기 또는 PC를 통해 제공하는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
- KB증권을 비롯한 핀테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첫 지정되면서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퇴직연금 RA 서비스가 곧 출시될 전망
  - 특례 부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RA 기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문형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과한 금융회사는 IRP를 대상으로 RA 일임 상품 판매가 가능해짐
  - 신청기업은 부가조건으로 ▲자본잠식인 신청사들은 자본건전성 개선 방안을 이행 완료하고 ▲동일 상품 쓸림현상 등의 방지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며 ▲시장불안정성 확대 시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중단 시의 투자위험을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해야 함
- 앞으로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고객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될 것
  - 해당 서비스는 IRP 가입자의 투자를 장기적 관점의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확대시켜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 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출처 : 매일경제(2024.12.26.) “AI로봇이 해주는 노후설계”...‘퇴직연금 RA’ 혁신금융서비스 첫 지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2.24.)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등 신규 지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500건 돌파